

# “절에 담긴 아름다움·의미 전할 수 있어 보람”

문화유산 보호 유공 대통령표창 금강스님·국무총리상 백옥연 팀장

### 다양한 산사 프로그램·탁본 전시 등 진행... 불교문화유산 활용 이바지 백옥연 광산구문화재활용 팀장, 유교·서원문화 발굴 등 브랜드화 추진

미항사 주지 금강스님이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0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에서 불교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8일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또한 백옥연 광주시 광산구 문화재활용팀장은 문화재 활용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보급한 기여로 국무총리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먼저, 수상 소식에 금강스님은 “20년 전 이곳에 주지로 부임했을 당시 미항사를 정성껏 가꾸어 좋은 역할을 하는 도량을 만들고자 했다”며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절에 담긴 아름다움과 의미 등을 전해줄 수 있어서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금강스님은 지금까지 1200년 된 고찰 미항사를 배경으로 다양한 산사 프로그램, 탁본 전시 등을 진행했다. 특히 산사수련회등을 통해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줬다.

“조선시대 불화인 미항사 괘불탱을 복원, 모사하고 이를 매개로 가을에 괘불제를 개최했던 점이 기억납니다. 괘불제를 통해 지역민들뿐 아니라 미항사를 찾는 사람들이 저마다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하기를 기원했지요.”

스님은 또한 탁본 문양 전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탁본은 수행과도 같다”고 생각했기에, 그동안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 이르는 전국의 탑과 부도 문양을 탁본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중국 둔황 마고굴 전시관에서 탁본전을 개최했으며 그에 앞서 2015년에는 미국 밀워키시립미술관 초대로 탁본을 전시했다.

“천년 동안 이어진 문양은 한국 사람에게는 익숙하고 조화로운 무늬입니다. 오래된 우리의 전통 문양을 발굴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의미있는 ‘수행’이라고 봅니다.”

20년 전 미항사에 온 스님은 이제 곧 절을 떠난다. “최근 본사 대홍사로부터 새 주지가 온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스님의 임기는 내년 2월 3일까지다.

한편 이번에 국무총리상 표창을 받는 백옥연 광산구 문화재활용팀장은 “지금까지 문화재 활용과 관련해 프로그램을 브랜드화하는 것은 없었는데, 이번 선정은 그러한 부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백 팀장은 2012년부터 유교와 서원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했으며 특히 월봉서원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매진했다. 고봉 기대승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월



금강스님



백옥연 팀장

봉서원을 매개로 선비의 삶, 꼬마철학자 상상학교, 살롱드월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것.

백 팀장은 “기존 문화재 활용방식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한 창의적 시도를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요인 같다”며 “월봉서원 외에도 지역의 무양서원, 용아생가, 김봉호 가옥, 장덕동 근대한국 등 지역 문화자원과 결합해 지역브랜드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백 팀장은 정신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는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자원을 모티브로 학교, 마을과 연계하고 타 지역과의 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대, 사진공모 언론인·학생부문 수상작 전시회



정병석 전남대 총장과 학교 관계자들이 7일 전남대 대학본부 1층에서 열린 전남대 사진공모 작품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언론인·학생부문 수상작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전남대 제공>

###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저소득가정 여성 청소년에 위생용품 지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홍식)가 최근 뉴스진 후원을 받아 광주 지역 저소득가정 여성 청소년에게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 환경공단 등 광산구 4개 기관, 농산물 꾸러미 취약계층 전달



한국환경공단 호남권환경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역 농산물 꾸러미’를 통해 광주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해 광산구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화순탄광은 우리 역사이자 문화... 기록해 보존해야”

### 류재관 前 교장 ‘화순탄광’ 사진집 발간 480m 갱 속 들어가 생생한 현장 촬영

전직 교사가 퇴임 후 호남권 유일의 화순탄광을 소재로한 사진집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화순이 고향인 류재관 작가. 그는 40여 년의 교직 생활 중 화순에서 약 25년을 교사와 교감, 교장으로 근무했으며 한천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 퇴임했다.

류 작가는 10여 년 동안 틈틈이 익힌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퇴임과 함께 화순탄광과 인근에 있는 연탄공장을 소재로 작업해 첫 사진집 ‘하얀 미소’를 발간했다.

특히 이번 사진집은 탄광 관계자의 허락을 받아 광업소 내 시설은 물론 지하 수직 480m의 갱 속까지 직접 들어가 생생한 채탄작업 현장을 촬영한 것이어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탄광은 에너지원이 석유로 바뀌면서 1990년대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현재는 전국에 3곳만이 운영되



고 있다. 화순탄광만 하더라도 지난 1989년에는 한해 70만톤을 생산했지만 올해는 9만톤 생산을 목표로 운영중이며 현재 굴진과 채탄작업에 참여하는 광부는 39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류 작가는 “폐광돼 사라지는 것은 오히려 충만한 과거의 행적을 역으로 증명하는 일”이라면서 “사라진 것은 버려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고 문화다. 그것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결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불새 2020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MBC 특별생방송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⑪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이슈 픽 썸과 함께 스페셜	00 땅만 빌리지(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재) 50 전교톱10(재)	00 12 MBC 뉴스 20 MBC 특별생방송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특목 보험설계
⑬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만사 50 안녕 우리말(재) 55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5 뽀빠보 친구친구 3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50 2시 뉴스 외전	45 내고향 전파 스페셜
⑭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팔도방송	00 바다 건너 사랑(재)		00 뉴스브리핑
⑮	00 TV쇼 진품명품(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성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잠깐! 쉬엄말 어때요? 25 이맛에 산다	
⑯	00 사사건건	00 트레킨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핏 벤틀린(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⑰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재)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남도에 가요 다시보기
⑱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45 닥터 365 50 최강 1교시
⑲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⑳	30 누가 뭐래도	30 노래가 좋아		30 KBC 8 뉴스
㉑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땅만 빌리지	20 카이로스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㉒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옥탑방의 문제아들	40 PD수첩	00 펜트하우스
㉓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5 미래원정대의 위대한 여정 스페셜	15 불타는 청춘
㉔	10 KBS결작 다큐멘터리 (شم, 북서풍과 마주하다)(재)	0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통합뉴스룸 ET(재)		35 나이트 라인

##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 하니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 베어 베어스: 곰 버라이어티
07:15 출동! 슈퍼윙스	12:25 넥스트 히어로	19:30 자이언트 팅TV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30 클래식 e	19:45 극한직업 스페셜
07:45 꼬마히어로 슈퍼액	13:00 EBS 다큐프라임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08:00 당당동 유치원	13:55 미래교육 플러스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티시테시	14:4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2	(당신이 꿈꾸던 아프리카 -바오바브나무의 꿈, 마다가스카르)
08:45 방구대장 뽀빠이	15:45 몬스터	21:30 한국기행
09:00 뽀롱뽀롱 뽀로로	16:15 올리엔 문	(찬바람이 불면 2부 물길 따라 굿이 굿이)
09:15 핫도그만 만들어볼까요	16:30 당당동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명탐정 피트	16:50 해와 해와	22:45 건축탐구 - 집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30 한국기행	17:20 마사와 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출동! 슈퍼윙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8일(음 10월 24일 乙酉) ☎ 010-9790-8237

<p>36년생 지성으로서 시중일관한다면 성취하리라. 48년생 용도에 부합해야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60년생 가볍게 여기다가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다. 72년생 세상에 갇힌 새가 구름을 그리워하는 격이다. 84년생 현상을 무시한다면 디딤돌을 잃게 될 것이다. 96년생 시기가 아니라 완성도의 문제이니라. 행운의 숫자 : 04, 84</p>	<p>42년생 일시적으로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느니라. 54년생 현실에 충실 하는 것이 옳다. 66년생 원만한 관계의 형성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78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 있다. 90년생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형상이다. 02년생 오늘 당장 해결할 필요까지는 없으니 조금씩 서두르지 말라. 행운의 숫자 : 40, 85</p>
<p>37년생 기생유역의 이치에 의해서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로 바뀌리라. 49년생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61년생 가만히 살펴보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73년생 기대는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85년생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지 말라. 97년생 서로 진행 방향이 상반되니 인연이 박하다. 행운의 숫자 : 18, 53</p>	<p>31년생 행운을 이끄는 길성이 비추고 있다. 43년생 자연스런 것이 훨씬 어울린다. 55년생 점점 기막을 잡게 되는 형국이니라. 67년생 놀랄 정도로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다. 79년생 타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해야겠다. 91년생 정성을 다 했을 때 미련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0, 69</p>
<p>38년생 세 번 생각하고 말한다면 실수하지 않으리라. 50년생 제만 여건을 조성하고 불 일이다. 62년생 남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밖에 없다. 74년생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아예 만들지 말라. 86년생 절실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으리라. 98년생 지혜가 앞서야 할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27, 66</p>	<p>32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 있다. 44년생 소비적 이어서는 아니 된다. 56년생 예상치 못한 기별이 있을 수 있으니 각오하고 있어야겠다. 68년생 자신이 직접 행함이 마땅하다. 80년생 경청하자. 92년생 발전할 유도를 할 수 있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47, 78</p>
<p>39년생 치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좌우 될 것이다. 51년생 오늘의 고생은 미래의 행운을 부를 것이다. 63년생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로 바쁘다. 75년생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87년생 주변에 인연이 박한 이들이 보인다. 99년생 행운의 기운이 길게 이어져 있다. 행운의 숫자 : 33, 60</p>	<p>33년생 기본적인 것이 미비한 상태라면 성과가 저하 될 수 밖에 없다. 45년생 제 눈썹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57년생 상대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내내 색하려 한다거나 숨기려 하지 말라. 69년생 기본 행태는 그대로 유지하자. 81년생 상호간에 발전을 이룰 것이다. 93년생 도움을 주는 이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4, 86</p>
<p>40년생 명이나 영달이 따를 수도 있는 행운의 날이다. 52년생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확하게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리라. 64년생 용기가 필요하다. 76년생 처음의 것이 가장 나으니 그것을 택하라. 88년생 지켜야 할 선은 반드시 준수하자. 00년생 순순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38, 82</p>	<p>34년생 거리를 두었을 때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46년생 반쪽 될 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는 않는다. 58년생 골격을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70년생 지금 이대로 조율해 나간다면 완벽에 가까운 판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82년생 오래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94년생 사려 깊어 처리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2, 72</p>
<p>41년생 실질적인 면을 우선해야겠다. 53년생 비슷한 처지여서 쉽게 공감 하리라. 65년생 일도양단할 수 있는 처신이 필요하다. 77년생 현상이 보이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라. 89년생 굳이 내면까지 모두 드러낼 필요는 없다. 01년생 일일생활속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행운의 숫자 : 06, 71</p>	<p>35년생 계획대로 조처한다면 성공의 길을 이끄는 열쇠가 보인다. 47년생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59년생 이면의 처지와 환경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71년생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진용을 정비할 때다. 83년생 상응하는 흐름에 내맡기면 무리 없이 성취한다. 95년생 전환시킬 수 있는 역발상이 유용하다. 행운의 숫자 : 21, 91</p>